

예술의 행성에 착륙하라 '전주예술놀이축제'

전주문화재단, 19~21일 팔복예술공장 일원서 공연·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최

'2025 전주예술놀이축제'가 오는 19~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다.

9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에 따르면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관계의 행성: 무한한 교차점'으로 △후원문화 확산 △환경을 위한 예술 △예술가를 호명하는 예술놀이 등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3일간의 예술적 여정을 떠난다.

축제 기간 동안 팔복예술공장 곳곳에서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어린이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무료 예술놀이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퍼포먼스·전시도 준비돼 있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국제적 교류가 더욱 확대됐다. 개막일에 열리는 제7회 예술놀이 전주 국제포럼에는 독일 '킨더쿤스테렌트럼(어린이예술센터)'과 호주 '아트플레이'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해



'2025 전주예술놀이축제'가 오는 19~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주예술놀이축제.

외 관계자와 예술인들이 직접 전주를 방문, 국내 예술가와 교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한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주예술놀이축제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국

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경계 없이 예술을 경험하고, 팔복예술공장의 예술교육 전문성도 한층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어린이들 위한 소리인형극 춘향가 시리즈2 '어사장모 월매'

20일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공연

소리인형극 <월매면>이 '2025 전주문화재단 공연예술지원' 사업 우수레퍼토리에 선정, 어린이들을 위한 소리인형극 춘향가 시리즈2 <어사장모 월매>라는 이름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이에 따르면 조민지아트컴퍼니는 전통 판소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인형극을 접목한 융복합 예술을 기획했다.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춘향가>를 첫 무대로 삼아 2022년 <춘향년>, 2024년 <월매년>을 제작했으며, 인물별 시리즈화를 통해 판소리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확장형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불리며 사설이 가장 잘 정리된 동조체 판소리를 기반으로 소

리인형극을 제작하고 있다.

지난 공연에서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 "불거리가 좋았다", "배우와 인형이 함께 연기하는 모습이 익살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판소리와 샌드애니메이션이 함께 나와 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이 주를 이루며, 앙코르 요청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판소리의 어려운 사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장치로 샌드애니메이션과 인형의 시각적 효과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편 <어사장모 월매>는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며, 전석 2만원으로 나뉘컬쳐(1522-6278)에서 예매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익산시민생활문화제 · 일상문화도시 익산, 페스타' 12~13일 개최

익산 유천생태습지공원에서 시민과 동호인이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 축제가 열린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9회 익산시민생활문화제 · 일상문화도시 익산, 페스타(Festa)'가 오는 12일 오후 7시 유천생태습지 야외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제9회 익산시민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이명준) 주최로 진행되며, 동호회원들이 열정으로 갈고닦은 실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

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서는 한국무용, 통기타, 색소폰, 고고장구, 퓨전난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고, 3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출연해 시민들과 어울리는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

현장에서는 공연 외에도 서예, 캘리그래피, 공예, 다육이 화분 만들기 등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21)

몽당연필

- 오 상 근 -

"여기는 원래 닭이나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가 대부분이었는데 폭설로 낡은 축사가 무너지니까 아예 다 철거를 하고 마을을 새롭게 바꾸려 하는가 봐요. 저기 저분이 이장인데, 몇 년 전에 어제 봤던 강투이자 수녀님 때문에 이 마을로 귀촌해서 마을 이장 일을 하고 있다는 군요."

"그 외국수녀가 뭘 어떻게 했기에....."

"40년 전부터 이 마을에 들어와 이곳에 있던 한센인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본 것이겠지요."

"그 수녀는 아직 안 나온 모양이네요. 어제는 여기서 일을 하더니."

"곧 나오시겠지요. 허허허."

보호관할관은 철거현장으로 걸어들고 동식도 그를 따라갔다. 어제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었고, 역시 잠시 후에 성당에서 강투이자 수녀가 나와서 일손을 보았다. 한 시간 좀 지났을까.

"마을 어르신 병원 가는 날인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투이자 수녀가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동식과 눈이 마주쳤다. 일꾼 중에 가장 덩치가 좋아보였기 때문이라. 동식이 도와줬으면 하는 눈빛이었다.

사람들이 힐끔 동식을 쳐다봤다. 어서 수녀를 따라 나서라는 무언의 표정으로. 동식은 손을 털고 투이자를 쳐다봤다.

"내, 내가 갈게요."

"그래줄래요. 호호호. 할머니를 봉고차에 태워주면 돼요."

동식은 투이자를 따라갔다. 수녀는 낮은 언덕에 위치한 성당으로 올라갔다. 수녀의 걸음이 절뚝거리듯 뒤통거렸다. 다리가 안 좋은 건가.

수녀는 성당 옆 창고로 보이는 건물의 문을 열었다. 천장도 낮고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도 좁아보였다.

창고라 예상했는데 수녀가 머물고 있는 주거지인 모양이다. 좁고 낡았지만 단출한 가재도구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잔잔한 뭔가가 물결이 되어 동식을 촉촉이 적시고 있었다.

"이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동식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오고 말았다.

"예, 아주 좋은 집이에요. 항상 하느님께서 함께 하고 있으니 정말 좋은 집이지요. 호호호."



동식은 무슨 말인가를 더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강 수녀의 눈을 피했다.

거처에는 한 사람이 들어서기도 좁은 주방이 있었고 그곳에 어울리게 작은 식탁과 그에 걸맞은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조리 기구나 그릇들도 모두 오래되어 보였지만 가지런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신발장에 놓인 신발은 몇 켤레 되지 않았는데 모두 뒤축이 닳고 낡아보였다. 식탁에 놓인 물건 중에 동식의 눈을 끄는 게 있었다.

연필이었다. 연필은 모두 몽당연필이었는데 손가락 두 마디보다 작은 크기였다. 저 작은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인가.

이태리에서 왔다고 했는데,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 와서 이런 곤궁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동식은 강 투이자 수녀의 삶의 궤적이 궁금해졌다.

투이자 수녀는 자동차 키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성당 마당 한쪽에 낡은 봉고차가 서 있었다.

"제가 운전할까요?"

동식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다. 전혀 동식답지 않은 행동이었고 제안이었다.

건달은 남에게 위세를 부리는 건 익숙하지만 돕는 건 낯설다. 건달은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헐박하고 으름장을 놓아 먹을 것을 강탈해서 제 배를 채우는 하이에나다.

지금 하는 동식의 행동은 그런 하이에나가 취할 자세가 분명 아니다. 동식의 마음 어딘가에도 누군가에게 나눠줄 동정 같은 것이 있긴 있는 건가.

투이자는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이 처는 나밖에 운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봉고차는 수동이었다. 기어를 넣는 손질이 정교하지 않으면 기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